

브렉시트와 국경 지키기

성경말씀: 신32:7-9

1주일 사이,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 84명 사망, 독일 통근 열차 도끼 만행 5명 부상, 뮌헨 쇼핑몰 총기 난사 9명 사상, 이슬람 테러

이슬람 국가(IS), 이슬람 난민, 브렉시트, 트럼프 반 이민 정책 등 세상이 요동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 다미 선교회 같은 센세이션 No! 성경은 예언을 담고 있는 유일한 책,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 역사가 이 안에 들어 있다. History 녹12:54-57, 세상의 때를 분별해서 올바르게 굳건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사야, 예레미야, 계시록, 사복음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재림 설명 필요

적그리스도의 세계화

다니엘서, 계시록, 살후를 보면 교회의 휴거 이후 7년간의 환란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등장에 필요한 요소가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 치안 문제, 혼돈, 평화를 갈망하는 분위기

단8:25,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함

살전5:3, 적그리스도를 통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한다.

그래서 휴거 이전의 온 세상은 넘치는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무드, 용인하는 무드

세계화, 모든 언론 매체가 이쪽으로 나간다. 정치, 종교 등 모두

유럽 대륙의 변화

1850년대 이후로 공산주의 등장, 1922년 레닌에 의한 소비에트 연방, 여러 나라들의 강제 결속, 1920년대 중반에 스탈린의 독재, 1991년 12월 31일 해체, 15개 나라 독립

이러는 가운데 유럽의 통합, 유럽은 구시대 로마 제국의 중심, 다니엘서 기록, 예수님 초림 때의 로마 제국은 재림 때에 다시 한 번 부활하며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왕국의 리더로 서게 된다.

EU(유럽 연합), 1993년 11월 1일 창립, 독일,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 5억이 넘는 인구

유럽연합 창립 목적은 무엇보다 먼저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현하여 유럽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방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EU는 단일시장 등의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의 통합 국가가 되려 함.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은 EU가 경제공동체 이상의 통합과 발전을 꾀하면 안 된다.

유럽 모든 나라는 다른 언어, 다른 역사, 이를 어기면 와해되고 말 것 예언

영국과 브렉시트

세상을 움직이는 두 민족: 유대인, 앵글로 색슨족(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국은 유럽 대륙에 속하지 않는 섬나라, 로마 사람들도 처음에 정복하지 못함.

티툴리안(AD 155-222)에 의하면 이미 그의 시대에 복음이 영국 사람들에게 들어갔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영국이 유별나게 8세기에 시편과 복음서 번역, 10세기 후반부터 성경 번역

1382년경에 현시대 영어라 불리는 언어(반은 색슨족 언어, 반은 노르만/프랑스 어)가 정착되면서 위클리

프를 통해 처음으로 영어 성경이 나옴,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통합된 성경전서, 계속 번역

그 당시 세상은 로마 카톨릭 세상, 영국도 마찬가지,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 탈 천주교 확산

1538년 헨리 8세의 수장령, 성공회 설립(로마와의 결별), 1558년, 그의 딸 엘리자베스 여왕의 등극,

1588년 무적함대 제패, '해가 지지 않는 나라', 1611년 제임스 1세가 킹제임스 성경 반포(Holy

Bible), 영연방(현재 53개국), 영국의 후에 미국, 말로 힘으로 문화로 종교로 전 세계 장악

1. 영어(English), 시, 셰익스피어 등의 작품, 2. 산업 혁명 등 각종 기계, 기술, 3. 정도 0도 그리니치

천문대, 표준시, 4. 성경(Holy Bible), 영국은 이방 민족들의 표준

앵글로 색슨족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 유대인 보호와 말씀 보존, 복음화

1. 1948년 5월 이스라엘의 독립: 영국과 미국, 여러 차례 중동 전쟁, 지금도 이스라엘 보호

2. 1611년 홀리 바이블, 미국의 성경, 미국 침례교인들의 성경, 근본주의, 성경 무오설

3. 세상으로 식민지를 확장하면서 전 세계 복음화, 문명화(유명하다는 목사는 영미인, 신학교재) 그러므로 영국과 미국은 역사와 헌법 및 국가 체제, 철학, 문학, 음악, 문화 등에 기독교가 배어 있다.

미국 대통령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 영국의 왕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맹세하며 기독교 정신으로 국민을 치리하겠다고 약속하며 대관식, 2차세계대전 던커크 철수 금식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은 이스라엘 보호에서 물러나고 관용(플레랑스)이라는 이름으로 이교도 문화를 급격히 수용하면서 힘을 잃게 되었다.

1969년부터 영국은 관용 정책 수용: 문화인은 용인해야 한다(동성애, 이슬람, 신성모독, 자유주의) 그러면서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TV가 등장하면서 사람 중심의 상대주의 문화(너 좋은 대로 해라), 혼전 성관계와 낙태 허용, 사회적 공산주의 파급(사회주의), 그러면서 1975년에 유럽 경제 커뮤니티에 남기로 함: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버리고 대륙의 천주교 철학과 사회주의 수용하기로 함

“유럽 연합체에 남아야 경제적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일종의 핏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사람의 수를 의지하기로 결정함(시146:3-5)

유럽 연합에 들어가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 발생: 국경이 허물어지면서 이교도들이 몰려들어옴

매해 60만 명의 이민자, 영국인들이 직업을 잃고 이 식으로 가면 2030년에 영국은 인구의 6분의

1 정도가 외국인(대다수 이슬람), 이들은 여러 아내를 두고 10명씩 아이를 낳는다. 5분의 1

현재 영국 시장이 무슬림(파키스탄 출신), 런던에서 태어나는 남자 아이 이름 1위: 무함마드

영국의 교회당들이 선술집, 회교 사원 등으로 변모, 엄청난 규모의 테러, 강간

영국의 모체인 앵글로색슨족: 기독교 문화와 전통이 삽시간에 무너질 상황

동시에 유럽 연합 3대 국가로서 빛이 많은 다른 국가들을 먹여 살려야 함, 이것이 사회주의 발상

역사를 보면 말과 문화가 다른 나라들을 합쳐 놓으면 반드시 전쟁이 나거나 평화가 깨진다(유고슬라비아 (1943-1992)).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

6월 23일, 투표, 찬성 52%, 반대 48%, 브렉시트, 캐머런 총리 사임, 메이 총리 등장

전 세계 대부분의 매체들 찬성 반대, 명청이들 등 조롱(세계화 세력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신자로서 이런 사태를 보아야 한다.

국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성경에 물어야 한다(7). 6,000년의 역사의 의미, 민족, 국가의 의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온 세상에 퍼져 땅을 채우라고 하신다(창1:28).

마귀의 개입으로 노아의 홍수 재앙이 온 뒤 노아의 8식구로부터 세상 민족들을 만드심

벨렉의 때에 땅을 나누시고 온 세상에 이들을 흠으심(창10:25).

원래는 이들은 바벨탑에 머물러 흠어지기를 원치 않음(최초의 세계화 시작). 말의 혼잡, 강제로 흠음

이렇게 흠으면서 모든 민족에게 거주지 한계를 정해 주심. 야곱의 자손 70명(출1:5)에 따라 분배

창10장의 70개 이름, 노아의 1가족에서 70민족, 이스라엘은 나오지 않음, 이들에게 거주지 한계를 정해 주심,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흠어오면 세상의 평화가 유지됨(행17:26-27), 세계화가

되던 하나님 대적

그 일의 핵심 인물이 적그리스도, 세상 모든 나라는 세계화를 통해 조직적으로 하나님 대항, UN 이렇게 하신 이유: 이스라엘 보호(9), 말세에 세상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둘로 나뉜다.

세계화 쪽은 이스라엘 배척, 정상적인 기독교인들, 기독교 국가는 보호

이번에 영국은 과거를 돌이키고 하나님 쪽으로 서겠다고 투표한 것이다. 이스라엘 보호, 국경 지키기

트럼프의 공약: 반세계화(미국 중심), 멕시코 국경 지키기, 이슬람 난민 반대, 이스라엘 보호

창12:3의 약속, 앵글로색슨족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지켜보자.

우리나라도 국경을 지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친이슬람 정책 반대(무지의 결과), 북핵 억제를 위한

싸드 배치 등 찬성: 국가가 무너지면 무질서와 혼돈, 공산주의자들의 활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견딜 수 없다. 현재의 국경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 기독교인의 의무, 기도해야 한다.
개인의 원수 사랑과 국가의 국경 지키기는 별개의 문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게 달렸다. 대하14:2-6 아사의 개혁과 하나님의 복